생각과 생각의 경계에는 '꽃'이 핀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는 말이 있다. 함민복 시인의 시집 제목과도 동일한 그 말은 '경계'가 지니는 의미의 상징을 드러낸다. 경계의 만남이 잉태하는 신비 내지는 조화의 창의성을 말한다.

그렇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그것이 꽃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우정일 수도 있다. 나아가 이윤이거나 부가가치, 내지는 시너지 효과일 수도 있다.

경계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대다. 새로움이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생각의 경계는 어떨까. 생각의 경계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까.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김성호 교수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 '생각의 경계'를 펴냈다. 경계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영역이 맞닿는 지대를 상정한다. 그동안 생각과 뇌의 기능을 연구해온 저자는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 창출하는 변화에 주목해왔다.

연구의 시작은 하나의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수재들이 모였다는 카이스트 학생들이 세대가 바뀔수록 문제해결능력에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였다. 특히 창의성을 요하는 과제에 있어 수행능력이 이전 선배 학생들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랫동안 저자는 무형의 구조물인 지식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수학적 모형과 통계학적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사람의 생각과 지식상태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도달한다.

'생각의 경계' 김성호 지음

사람은 낯설고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본능적으로 경계에 서게 된다. 우선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무언가를 인지하게 된다.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대상이나 상황일수록 뇌는 긴장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익숙한 내용이라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다.

긴장감은 생각의 경계 지대에서 발생한다. 일종의 창조적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가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섞인 곳에서 새로움이 싹튼다. 마찬가지로 변화는 생각과 생각이 충돌하고 엇갈리는 경계에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생각의 경계 지대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무지와 불확실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응시, 호기심, 교감과 같은 인지적 특성도 내재돼 있다. 기존에 가졌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무한한 지식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사람의 뇌는 낯설거나 새로운 것을 접할 때 긴장과 함께 집중력을 발휘한다. 학습과 지식은 이 과정에서 형성된다. 새로운 생각이 발아하는 시작점이 경계라면, 이 경계를 시발로 지식은 몇 개의 단계를 거쳐 진화한다.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접근하게 해주는 '매듭', 지적인 목마름 현상인 '질문', 지식 생태계를 형성하는 '지식의 공유',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공백으로써의 '공백' 등 여러 과정이 있다.

즉 지식을 축적하는 방식에 유사한 코드 내지는 방식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가 지닌 지식은 완벽하지 않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성향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가 접하는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고 더러는 왜곡된 상태로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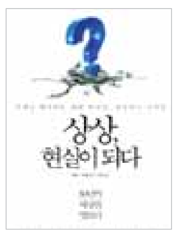
원점으로 돌아가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식은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다. 머릿속에서 생겨나고 강화되고 진화하기도 한다.

생명체와도 같은 지식을 어떻게 잉태하고 성장시킬지 자명해진다. 생각의 흐름에 집중하되, 제한적인 정보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경계에서 꽃이 피는 건 유연한 전이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권의 책·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투명망토부터 하늘을 나는 자전거까지

'상상, 현실이 되다' 유영민·차원용 지음



30여년 전 영화 'ET'에서 주인공과 친구들이 타고 있던 자전거가 하늘로 날아올랐을 때 관중들은 환호를 보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하지만 이미 지난해 6월 체코에서 그 상상의 자전거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스파이더맨'처럼 벽이나 건물에 붙어 있어도 끄떡없는 접착제도 개발중이라는 소식이다. 우리가 상상했던 영화 속 주제들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상상들은 이제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상상이 곧 현실이 되는 앞으로의 30년을 생생하게 풀어낸 책 '상상, 현실이 되다'가 출간됐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 유영민과 차원용은 과거 상상의 결과물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알려준다. 책에는 상상과 첨단 기술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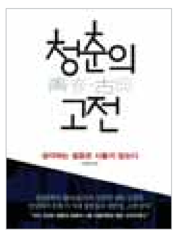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투명 망토의 놀라운 상상력은 이제 메타물질을 통해 눈앞에서 누군가가 있던 공간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제5원소'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자기부상 3차원 전기 자동차도 조만간 등장할 것이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라는 앨빈 토플러의 말을 좋아하는 저자 유영민은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다양하고 풍부한 상상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프롬북스·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안녕하지 못한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청춘의 고전' 김경집 지음



"세상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 나의 삶이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 나를 잡아준 것은 바로 고전이었다."

'인문학은 밥이다'의 저자이자 인문학 대중화에 애쓰고 있는 김경집씨가 펴낸 '청춘의 고전'에는 안녕하지 못한 이 시대 청춘들에 대한 생존법이 담겨 있다. 그것은 거창한 구호나 전략이 아닌 바로 고전 읽기다.

저자는 청춘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했을 생의 주제를 고전과 연계해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사람과 삶'을 만나는 방식에 대해 얘기한다. 지식 자랑을 위한 케케묵은 고전이 아니라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숱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저자가 '인생지도로서의 고전', '실용적 지혜로서의 고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예로 인생이 밑바닥에 봉착한 것처럼 느껴질 때면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펼쳐보라고 제안한다. 십대 때부터 노동의 현장에 내쳐져야 했던 주인공들이 어떻게 극단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바로 설 수 있었는지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 등을 통해 내가 정의롭지 않으면 사회 역시 정의로울 수 없다고 단언한다. 불의한 사회에 결연하게 저항할 수 있을 때 미래는 물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너머·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중국 외교의 실천적 담론

'중국 외교의…' 왕이저우 지음

오늘날 G2 반열에 오른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위상에 걸맞는 외교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 외교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담은 책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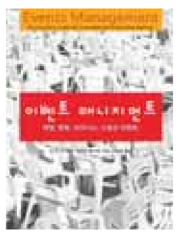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이자 중국 외교의 권위자인 왕이저우 교수가 펴낸 '중국 외교의 창조적 개입'은 변화하는 대내외 정세를 정확히 직시하고 세계차원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가 제기하는 '창조적 개입'은 효율적인 방안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적 담론을 담고 있다.

'창조적 개입'은 관성과 타성에 물든 관료적 사고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8가지 모범사례를 제시할 뿐 아니라 가상의 정세를 상정한 미래 중국의 모습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번역은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정원식 씨가 맡았다. 〈차이나하우스·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벤트 성공 열쇠는 누가

'이벤트 매니지먼트' 린 반 더 바젠 외 지음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 많은 이벤트가 실패를 거듭한다. 왜일까. 바로 전략적 계획 수립이나 리스크 분석, 마케팅, 인력 자원 관리 같은 정교한 실무 스킬이 적용되지 않아서다.

그렇다면 이벤트 성공의 열쇠는 도대체 누가 쥐고 있을까.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진두지휘했던 저자 린 반 더 바젠이 기획에서 연출, 운영, 홍보, 재무, 리스크 관리까지 이벤트 실무의 모든 것을 담은 맞춤 개론서 '이벤트 매니지먼트'를 펴냈다.

시드니 출신 아가씨와 줄루족 청년의 결혼식, 호주 F1그랑프리, 록 페스티벌처럼 풍부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각 이벤트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했는지 담고 있다.

번역은 국창민 케이비에스엔 전략사업 팀장이 맡았다.

〈커뮤니케이션북스·4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미래세대를 위한 지식과 교육의 역할

'엄지세대, 두 개의 뇌로 만들 미래' 미셸 세르 지음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엿보는 철학자가 있다. 현대 프랑스 철학의 거장 미셸 세르는 IT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신인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한다.

미셸 세르가 펴낸 '엄지세대, 두 개의 뇌로 만들 미래'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식과 교육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엄지세대'는 인터넷을 자신의 뇌와 연결된 뇌, 곧 '두번째 뇌'로 여기는 이들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터넷 기술과 함께할 첫 세대라고 한다.

이 신인류는 가상과 실재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수집한 정보를 짜깁기해 새롭게 가공한다. 이들은 정보를 퍼 나르고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동영상을 만들어 전 세계 수억 명과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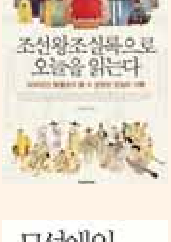
저자는 미래세대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지, 그리고 어른들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지를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예전에 구조화되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행동양식, 미디어 등과 완전히 차별화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엄지세대의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 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더욱 중요해질 감성, 인성, 네트워크 등을 고려한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저자는 지식이 민주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극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구조는 변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갈라카고스 8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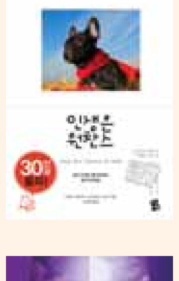
신간

▲新 황태자비 납치사건=김진명 작가가 다시 쓴 '황태자비 납치사건'이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출간됐다. 명성황후 시해 120년, 난징대학살 80년…, 한국인과 중국인에 의해 일본 황태자비가 납치된다. 그리고 날아든 범인들의 요구는 단 2장의 문서. 과연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란 무엇인가? 한·중·일 삼국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친다. 〈새움·1만4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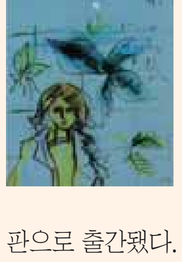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으로 오늘을 읽는다=오늘의 시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고, 역으로 조선왕조실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읽어보려 시도한 책이다. 책은 1부 조선의 문화와 생활, 2부 조선의 사회와 유교, 3부 조선의 법과 정치, 4부 조선의 무역과 경제로 나뉘어진다. 살인, 성과 스캔들, 이혼과 재혼 등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을 선택해서 '조선왕조실록'의 원문을 인용해 가며 그 해법을 제시한다. 〈다할미디어·1만8000원〉

▲모성애의 발명=모성애는 본능인가, 발명인가. 한국과 유사하게 독일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저자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은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바로 어제의 일이 무엇인지 모성의 사회사를 통해 분명하게 규정해준다. 출산과 육아를 여성의 문제로만 밀쳐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걸음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만든 어제의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전한다. 〈알마·1만3000원〉



▲인생은 원찬스='꿈을 이루어주는 코끼리'의 저자 미즈노 케이야와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작가 나가누마 나오키가 '소중한 말을 항상 옆에 두고 싶다'는 생각으로 의기투합했다. 그들은 소중한 말을 '인생의 이정표'로서, 항상 눈에 띄는 곳에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착오 끝에 '인생은 원찬스'를 완성했다. 〈지식여행·1만2900원〉

▲제3인류 3=지난해 10월 1, 2권이 출간돼 3개월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 3권이 출간됐다. 제2부의 첫째 권이다. '제3인류'는 베르베르 특유의 상상력으로 축조한 장대한 스케일의 과학소설이다. 인간의 손에 의해 새로운 인류가 창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들의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지,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거대한 규모의 상상세계를 흥미롭게 펼쳐 보인다. 〈열린책들·1만3800원〉



▲김지원 소설 선집 1~3=소설가 김지원이 일군 40년 문학 인생의 총체 '김지원 소설 선집'이 작가 타계 1주기를 추모하며 특별 보급판으로 출간됐다. 첫 소설 '늪 주변'과 등단작 '사랑의 기쁨'부터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 '사랑의 예감'까지, 작가의 중단편 소설 가운데 문학적 가치와 의의가 높은 작품들을 엄선하고 총망라했다. 1권에는 30여점의 작가 사진을 넣어 화보로 구성하고, 작가의 동생 소설가 김채원이 직접 설명을 달았다. 〈작가정신·전 3권 1만5000원〉

어린이 책꽂이

▲수학 마법사의 재미있는 측정 이야기=수학 마법사와 떠나는 재미있고 놀라운 측정의 세계. 수학의 기초 개념 중 하나인 측정이라는 주제를 알기 쉽고 흥미롭게 이야기로 구성한 수학동화. 선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에 필요한 측정법을 찾아 헤맸는지 등 아이들이 알아야 할 상식과 기초개념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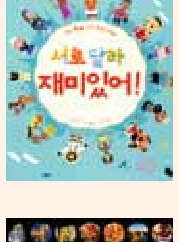
〈청어람미디어·1만1000원〉

▲생명 윤리 논쟁=유전자 변형 먹거리(GMO), 생명 복제, 장기 이식, 안락사, 동물실험 등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 윤리에 관한 논쟁이 담겨 있다. 나와 다른 입장을 만났을 때 내 입장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해를 통해 내 입장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른 입장을 설득하는 힘을 길러준다.

〈풀빛·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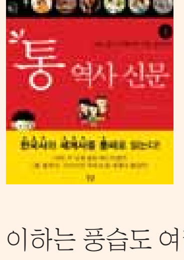
▲욕심 많은 가재 외=할머니가 들려주는 신기한 옛날이야기 그림동화 시리즈 '욕심 많은 가재'와 '이와 벼룩'이 나왔다.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옛날이야기는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이 된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지혜와 교훈이 가득한 전래동화와 설화에서 지혜와 따뜻한 감성을 발굴해 책을 만들었다. 전 20권 중 2권이 나왔다.

〈아이테르·각 권 1만원〉



▲서로 달라 재미있어!=지구 마을 사람들은 피부색, 생김새, 식습관, 사는 집, 입는 옷, 인사법, 아이를 키우는 풍습도 저마다 다르다.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도 여러 가지, 나라마다 재미있고 신기한 축제도 여러 가지다. 이 책은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지만 그게 서로 싸워야 할 이유가 아님을 알려 준다.

〈토토북·1만2000원〉



▲통 역사 신문=원시 시대에 신문사가 있었다면 어떤 기사가 실렸을까. 5권으로 구성된 '통 역사 신문' 첫호 '고대:선사 시대부터 기원 전후까지'가 나왔다. 역사의 현장을 담은 사진과 재미있는 일러스트, 퍼즐, 사설 등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역사를 공부하도록 도와준다. 〈꿈결·1만7600원〉